

배를 드리자”고 말했다.

오전 11시 정각
<https://youtu.be/JZjxqCqMXu8>
링크를 클릭하면, 새언약교회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연결된다.

첫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새언약교회 교인들은 “교우들을 한주 못 보는데 오래 못 본 것처럼 그림다. 저는 10시에 혼자 영상 예배를 드렸다.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.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교회에서 뵙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.” “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손색없이 드리게 됨에 너무 감사하다, 은혜로운 말씀에 우리 모두 용기를 가졌다.”고 말했다.

또 “자연스럽고 은혜롭게 드러진 예배였다 하나님과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” “전화기로 시작했다가 화면이 작아 TV로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해서 몇 분 늦은 지금 은혜로 예배를 마치고 감사드립니다.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유월절을 넘어가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길 바란다” “집에서 드리는 예배 인데도 온 신자들이 함께 드리는 것같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.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” “현실에 맞는 맞춤형 주일 예배에 감동을 받았다. 더욱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다.” “교회예배가 가정예배를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보았다.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”는 등의 소감을 남겼다.

〈기사·사진 제공=복음뉴스〉

O... 뉴저지주 오라델에 있는 새언약교회(담임 김종국 목사)도 22일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. 새언약교회 온라인 예배는 생방송(Live)이 아닌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 김종국 목사, 이창섭 장로(기도자), 김성욱 집사(특송 및 찬양 인도), 정한나 집사(반주자), 김동욱 목사(촬영) 등 5명이 3월 20일(금)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 실황을 녹화했다.

김종국 목사는 “오늘은 주일이다.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,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전 11시에 온 교우들이 함께 예